



# 영유아의 건강한 미디어 이용 첫 걸음



# 코로나19 이후 증가하는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시간

육아정책연구소가 실시한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2021)에 따르면, 영유아의 스마트폰, 태블릿PC 이용시간은 주중 하루 평균 55.3분, 주말은 97.6분이며 2013년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미디어 이용이 증가한 경우가 66.8%였습니다.

## 영유아의 스마트폰, 태블릿PC 이용시간

2013 | 2021



주: 조사 대상연령이 2013년은 만 0~5세, 2021년은 만 0~6세로 상이함.  
출처: 이정림, 도남희, 오유정(2013). 영유아의 미디어 매체 노출실태 및 보호대책 연구.  
이정원, 박원순, 엄지원(2021).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적정화를 위한 정책 방안 연구.

# 영유아가 미디어기기를 주로 이용하는 곳과 이유는 무엇일까요?

영유아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이용은 주로 집안(88.7%), 식당, 카페(76.2%)에서 사용 경험이 있었습니다.

## 영유아 스마트폰, 태블릿PC 이용장소



허용하는 목적은 조용히 시키기 위해서, 보호자의 일을 하기 위해서인 경우가 70% 이상이었습니다.

## 스마트폰, 태블릿PC를 허용하는 목적

공공장소에서  
조용히 시키기  
위해

74.3%

보호자의 일을  
자녀의 방해없이  
하기위해서

70.2%

자녀가  
할 일을  
했을 때 보상

56.2%

교육용 어플,  
온라인 수업  
등

52.0%

주: 1+2순위 응답을 합한 수치임.

출처: 이정원, 박원순, 엄지원(2021).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적정화를 위한 정책 방안 연구.

# 부모들이 느끼는 영유아 자녀의 미디어 과의존

가정에서 영유아의 미디어 과의존성을 의심해 본 적이 있는 부모의 비율은 20.1%에 달하였고, 이 중 실제 과의존으로 인한 문제행동을 보인 경우는 54.8%였습니다.



미디어 과의존 의심경험 비율

20.1%

과의존성이 의심되는 경우 중,  
미디어 과의존성 의심행동 비율

54.8%

# 영유아 자녀의 미디어 과의존성 부모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요?

부모들은 보호자가 있는 공간에서만 이용하거나, 미이용 시 꺼놓기, 보호자와 함께 이용하기 등의 방식으로 영유아 자녀의 미디어기기 이용을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 가정에서의 미디어 이용기기 지도 방법/자주+항상



출처: 이정원, 박원순, 엄지원(2021).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적정화를 위한 정책 방안 연구.

# 영유아의 바람직한 미디어 이용을 위해 부모들이 바라는 정책은?

올바른 미디어 이용을 위한 부모 교육의 확대, 영유아기 미디어 이용 지침에 대한 홍보 강화, 영유아를 보호할 수 있는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정책을 원하고 있었지만 그 중 미디어 이용에 대한 부모교육을 원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 영유아의 바람직한 미디어 이용을 위한 정책방안별 필요성



# 자녀들의 올바른 미디어 이용을 위해 부모들은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미디어 이용지도 교육을 받은 경우, 미디어가 영유아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좋은 미디어 콘텐츠를 고를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 미디어 이용교육이 자녀의 미디어 이용지도에 도움이 된 부분



주: 중복응답임.

출처: 이정원, 박원순, 엄지원(2021).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적정화를 위한 정책 방안 연구.

# 바람직한 자녀의 미디어 이용을 위해 부모들이 원하는 교육은?

부모들은 영유아 자녀의 미디어 이용에 대한 부모가 해야 할 행동, 지도 방법 등 '부모의 역할'에 관한 교육을 가장 희망하였습니다.



## 영유아 미디어 이용 교육에 희망하는 내용



주: 중복응답임.

출처: 이정원, 박원순, 엄지원(2021).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적정화를 위한 정책 방안 연구.

영유아의 올바른 미디어 이용

# 부모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